



光州日報 창사 60주년 기획시리즈

생명산업 농업을 다시 본다 <2>

<1부> 농업, 포기할 수 없다

① 영세·고령농

고령에 맞는 작목·농법 보급 확대 ‘돈되는 농사’로

영암군 금정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진출(71)씨는 올해부터 농사를 그만둘지를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농사를 전직으로 알고 고향에서 50년 가까이 벼농사만을 지어왔지만 한 해가 다르게 힘이 떨어져 고된 농사일이 갈수록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규모 기업농이 흔한 요즘 기준으로야 비교가 안되지만 김씨도 한때는 30마지기(6000평, 2ha)까지 지어 마을에서는 제법 부농에 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과 도시에 사는 다섯 자녀들이 먹고 내다 팔면 그만인 5마지기(1000평) 수준으로 줄었다.

김씨는 큰 돈 들어갈 곳은 없지만 농사밖에 할 것이 없어 손을 놓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럴만한 힘도 없어 농사일을 그만둘까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장흥군 안양면의 정경선(68)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논농사는 7마지기로 김씨와 비슷하지만 소를 1마리 키운다는 점이 다르다. 소규모 벼농사와 축산을 겸한 전형적인 복합농인 정씨는 일도 힘들지만 최근에는 소값 파동까지 겹쳐 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2년에 한번 꼴로 다 자란 소를 내다 팔고 있는데 소값이 너무 떨어져 헐값에 팔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비싼 사료를 계속 먹여 키우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FTA로 상징되는 농업의 자유경쟁 시대에 농촌의 고령화와 영세농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농도는 전남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농 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남의 농업 인구는 39만6000여명으로 전체 인구(191만8000명)의 20.6%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주민 5명중 1명은 아직도 농민인 셈인데 전국 평균 비율 12.9% 보다 많아 아직도 전남이 농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 농업 인구는 전남이 15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농 비율은 전국 평균(31.8%)보다 훨씬 높아 10명중 4명 꼴이다.

경작 면적이 0.5ha(1500평) 이하인 영세농 비율도 전남이 전체 농가의 37.7%인 6만4264 가구에 높은 편이다. 고령농가운데 영세농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 65세 이상 농민가운데 1ha 미만을 경작하는 비율은 69.1%나 된다.

이들 영세 고령농들은 연 소득이 1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이 65세 이상 고령농들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500만~1500만원이 39.7%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도 안되는 농가도 무려 32.6%에 달하는 등 응답자의 72.3%가 연 소득이 1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또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농산물 가격변동을 꼽았다. 영농 규모가 작다보니 계획 영농이 어렵고 시류에 휩쓸리기 쉬운 탓이다. 무슨 작목이 잘됐다고 하면 그쪽으로 몰려다보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가격 폭락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말의

■ 농가인구 추이 (단위:천명)

연도	전 남			전 국			전국대비(%)	
	총인구	농가인구	%	총인구	농가인구	%	총인구	농가인구
2010	1,918	396	20.6	50,786	3,063	6.0	3.7	12.9
2009	1,934	425	22.0	50,643	3,117	6.2	3.8	13.6
2008	1,939	439	22.6	50,394	3,187	6.3	3.8	13.8
2007	1,945	452	23.2	50,034	3,274	6.5	3.9	13.8
2006	1,955	461	23.6	49,624	3,304	6.7	3.9	13.9
2005	1,976	478	24.2	49,268	3,433	7.0	4.0	13.9

전남 농업인 40%가 65세 이상

72%는 연소득 1500만원 이하

도, 대규모 농가 참여 법인 설립

영농조합 활성화로 고령농 지원

배추 파동부터 최근 소 파동까지가 모두 이런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업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특별농산물조직화·기업화’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50ha이상 들녘을 중심으로 쌀전업농 및 대규모 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체를 만들어 품종통일, 공동 육묘·방제·수확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2개 법인체를 만들었고 올해까지 50개, 2015년에는 1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원예·특작분야도 비교우위 품목이나 시군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영농법인을 통합해 농업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매실·토마토·유자·고추·파프리카 등이 대표적인 품목으로 공동 선별부터 포장, 유통에 이르는 원스톱 처리로 생산비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축산분야는 브랜드 명품화 사업 등과 연계해 소·돼지 등 축종별로 농업회사를 만들어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 녹색한우와 지리산순한우, 함평천지한우 등이 대표적인 성공 법인들로 이들 전남산 브랜드 한우는 이번 설 매출만 112억원을 올렸다.

장덕기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영세농을 하루아침에 기업농으로 바꿀수는 없지만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을 활성화해 더 늘리고 고령농의 경우 지원사업을 확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진도군 임회면에 문을 연 진도대파 산지유통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품목별 유통 주식회사는 전남 농산물의 판매를 늘리는데 독특한 역할을 해 기업농 유통의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농업업 주식회사가 대안

20개 유통회사 지난해 1695억 매출

2년새 매출 5배↑ 완도 전복 ‘성공모델’

전남지역 농수축산 주식회사가 판매효과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기업농 유통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남도미향, 화순농특산물유통 등 농산물 종합유통회사 6개와 녹색계란, 완도전복 등 품목별 유통회사 14개가 운영중이다. 이들 유통회사들은 농어업인과 시·군, 농·수협 등이 주주로 참여한 주식회사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됐다.

전남도는 전국 최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이면서도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농

산물 유통에 어려움이 많은 점과 상대적으로 생산에 비해 마케팅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농가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을 만들었다.

또한 전남도유통회사협의회를 만들어 유통회사간 정보 및 마케팅 기법 등을 교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데 한 몫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노력들이 전남지역 농수축산물의 판매 증대로 이어져 지난해 이들 20개 유통회사의 매출액은 1695억원으로 전년대비 753억원이 늘었다. 6개 종합유통회사에서 1359억

원, 14개 품목별 유통회사가 336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각각 514억원과 211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봤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완도전복은 설립 첫해인 2009년 106t에 46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574t에 220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주주 수와 자본금도 615명, 34억4500만원에서 1216명, 87억4400만원으로 늘었다.

완도전복 이석규 대표는 “평균 45일 걸리던 대금결제가 법인 설립후 성과를 내면서 7일로 단축됐다”면서 “매출의 30% 가량이 수출물량이라는 점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명칭한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전남 농수축산물의 가공·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모화·조직화 사업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2014년까지 유통회사를 96개까지 늘려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사람 김건모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김건모 데뷔 20주년 기념 광주콘서트

가장 김건모 다운 음악과 무대 /

광대이기 이전에 가수이자 사람 김건모를 만나보는 시간

Be Orinatat ... 데뷔 20주년, 김건모 처음으로 돌아가다

1992년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로 데뷔 이후 ‘핑계’와 ‘잘못된 만남’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한국 가요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던 김건모가 2011년 데뷔 20주년을 맞이하여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20년의 시간동안 그를 지켜봐 준 팬들을 위해,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 사람 김건모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선보이고자 합니다.

‘가장 김건모다운 음악’을 찾는 일

대중가수로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고, 최고에게 필연적으로 돌아오는 좌절역시 겪었던 그이기에 이번 데뷔 20주년을 맞이하는 그의 마음가짐은 남다르다. 김건모에게 꼭 맞는 옷을 찾고 싶었다. 12집(KISS) 발표이후 2년동안 ‘김건모다운 음악’ ‘김건모를 말할 수 있는 음악’을 찾고자 끊임 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데뷔 20년을 맞는 그가 우리 앞에 돌아온다.

2012년 2월 25일(토) 오후 4시 30분 / 오후 8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사 | KCTV 광주방송 | 주 관 | 공연마루 | 문 의 | 062-220-0541, 1588-0766 | 예 매 | 티켓마루, 인터파크

自來傳

[자서전]

